

다산포럼

과학이라는 이데올로기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이다.”(We simply do not know) 경제학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케인스가 미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케임브리지 킹스칼리지 수학 전공자이며 확률론 논문으로 모교의 종신 펠로우에 올랐지만, 수학과 확률의 도식론(formalism)을 통해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태도를 누구보다도 불신했다. 케인스 대하 전기를 썼던 역사학자 스킵스키는 이런 불신이 “사회적 삶의 복잡성과 성찰적 성격에 대한 케인스의 이해가 점차 깊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케인스 ‘일반이론’의 태동에 참여했고, 케인스가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던 리처드 칸은 ‘일반이론’이 ‘수학적 도식과 하찮은 대수’로 환원된 것을 큰 비극이라며 탄식했다.

가령 물물교환 아닌 화폐경제 체제에서는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케인스 경제학의 주된 사상이지만, 갈수록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탐닉해 온 현대경제학은 종종 불확실성 개념을 ‘확률적 리스크’란 말로 대체하여 미래가 수학적으로

로 예측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보인다. 미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예측을 하려면 미래의 샘플을 추출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미래로부터 샘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샘플이 과거와 현재 데이터에서 추출된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고도의 통계적 정밀성을 지닌 확실성의 외양을 덧씌운다.

미래 지식은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빙판이 얇으면 스케이트 날을 바릴수록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 케인스의 지론이었다. 월기가 수백 명의 수학 전공자들을 고용해 만들었다는 가상선외환 과생산품들에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다투어 올인했다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던 얼마 전의 금융 위기가, 이와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식(방법)론이 과학에 포획된 것이 경제학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가령 최근 한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불거진 창조과학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가. 신학자 팀 켈러에 따르면, 성경은 인간이 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매우 선택적으로만 전해주며, 과학적·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드러내(reveal)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성경은 신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역사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해선 침묵한다. 창조론도 창조와 관련한 ‘왜?’에 대한 답변, 곧 인간은

분자들의 우연한 조합이 아니라 목적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점 외에, ‘어떻게?’ ‘얼마 전에?’라는 질문에는 속 시원한 답을 들려주지 않는다. 그런 것이다.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 들수록, 창조주의 참뜻은 가려지고 원래 의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미래의 지식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이론은 가설이다. 이론이 이론인 것은 그것이 반증(反證) 가능해서 잠정적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하버드의 철학자 토마스 쿤은 아예 자연과학의 발전도 학문 공동체의 기존 합의가 붕괴할 때 혁명적으로 온다고 말했다. 진화론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른바 ‘잃어버린 고리’(중간화석의 부재)에 관한 더 이상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진화론에 대해 최종적인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화론이 이론이 아니라면 신앙일 터이고, 이론이라면 반증 가능한 가설이어야 한다. 물론 인간의 지적·도덕적·미학적 능력은 자연도태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입장은 또 다른 차원의 답변이다.

열린 사회 위한 겸손한 이성

철학자 칼 포퍼가 마르크스 등의 ‘역사주의’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을 때, 그는 역사주의자들의 과학관이 부적절하다는 점, 곧 지식 등 기존의 조건들이 미래에도 지속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없는 한, 불가피한 어떤 미래를 상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역사주의’는 열린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정신에도 반한다. 정치사회학자 아담 스미스 르스키는 민주주의를 ‘불확정성의 제도화’로 요약했기니와, 정치를 확정적으로 창출하려 할 때, 독재는 탄생한다.

자기 연명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가장 흔히 동원되는 것이 과학이다. (“집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니체가 말했듯 진리 주장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는 물론 폭력적이지만, 언뜻 관용적으로 읽히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절대언명’도 권력 높음에이긴 마찬가지다. 어느 쪽이든 회색시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과학을 숭배하는 태도와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세상은 회색시대로 남치고, 삶은 새로운 기회들(second chances)로 충만하다.

궁극적 ‘지금’이란 없으며, 오늘은 미래 언젠고 폐기될 수 있겠거니와, 이성을 중시하되 유포하는 미학도 배워야 한다. 조심스럽게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지언정, “마침내 최종 결론을 얻었다!”는 태도는 순진하고 위험하다. 과학적 귀납을 구성하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말할 수 없이 불완전하다는 것, 미지의 시공간적 사례들은 늘 존재하며 관찰자의 눈엔 이미 편견이 깊이 개입해 있다는 점을 부단히 상기해야 한다. 단정하고 단언하는 사회는 과장과 과시로 병들어 가기 마련이다. 지금 나라 안팎의 범람하는 말의 폭력들을 우연으로만 볼 수 없는 이이다.

NGO칼럼

등산의 계절, 가을 산행 100배 즐기기



임 승 진 광주광역시 산악연맹 회장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산행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한다면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부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행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알맞은 산행을 해야한다. 지난해 국내 산에서 발생한 사고 223건 중 43건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 때문에 발생했다. 홀로 하는 산행은 금물이며 2인 이상이 산에 오를 때는 경험이 적고 체력이 약한 사람에 맞춰서 산행을 해야 한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므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물과 보온성이 좋은 기능성 여벌 옷, 양말 준비는 필수다. 요즘은 등산 전문 아웃도어에서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내 몸에 맞는 등산화, 등산복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가을철 낙엽에 덮인 산길은 낙엽 밑의 상태를 알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비가

온 다음날은 낙엽이 물기가 남아 미끄러지기 십상이다. 산행 전 등산화를 잘 점검하고 산행시에는 스틱을 이용하여 발을 내딛는 지점을 잘 살펴야 한다.

간식과 음식물은 가능한 가볍고 열량이 풍부한 것으로 준비한다. 초코바나 단팻빵, 양갱 등은 훌륭한 간식과 비상 식량으로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비상 식량과 식수는 산행을 완료할 때까지 약 20% 정도가 여유로 남아 있는게 좋다.

같은 향수와 화장품은 피하는게 좋다. 강한 향수에 예민하므로 가능한 한 향수 및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발에 쏘였을 때에는 얇고 단단한 카드 등으로 조금씩 긁어주면서 제거한다.

자신의 병력(고혈압·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은 산행 전 일행에게 알려주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비약을 챙기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소화제, 진통제, 밴드, 압박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을은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여 있으므로 산불에 조심해야

한다. 담배는 물론이러니와 가끔 버너를 가지고 와서 라면 등 음식물을 데워먹는 데 이는 자극히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위의 몇가지를 잘 숙지하고 사전에 대상 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행계획을 수립한다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을 나설 수 있다. 산행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귀가하는 시점 까지도이다.

특히 요즘 무분별하게 정상주, 하산주를 즐겨하는 산행문화는 극히 잘못된 것이다. 심정에 무리를 쥐서 또다른 사고를 부르는 요인이므로 이는 피해야한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산행 문화는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호호인들이 먼저 지켜야할 것이다.

자신이 머문 자리에 다음 사람이 머문다는 의식이 올바로 있다면 우리의 산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다. 이 가을 행행색색으로 물든 단풍과 역새로 출렁이는 명산을 찾아 지인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훌쩍 근교의 산에 다녀오는 여유로움을 한 번쯤 가져봄이 어떨지.

기 고

‘광주문학관’ 건립,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



임 원 식 광주문학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사)광주광역시 문인협회 회장

‘빛고을문학관’은 2012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조직된 ‘빛고을문학관추진위원회’가 문학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좌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주시는 빛고을문학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당시 강 시장의 시의회 답변이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신생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우리 광주시에만 문학관이 부재한 상태지만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 동안 문학관은 벽돌 한 장 쌓아 올리지 못했다. 금년 봄 윤장현 시장은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 내년엔 실행해 나가자”는 구두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광주문인협회 등은 시의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는 “문인들의 뜻을 통일해 오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에 따라 광주 문인들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앞장서서 지역 학계, 언론계, 경제계, 사회단체 대표로 ‘광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제1차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하였다. 아울러 광주 정신과 미래의 발전을 담을 수 있는 광주문학관 건립을 염원하는 문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광주문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1000인 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마감한 결과 3497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고 이에 힘입어 1만인 지지 서명 운동으로 전환했다.

문학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실무 부서에서는 과거 문학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문학관 추진을 무산시킨 그 당사자와 “의견을 통합해 오라”는 자기모순적인 요구만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시 실무진은 광주의 모든 문인을 대표하는 양대 문협의 의견

보다 왜 일개 특정인을 의식하는지 모르겠다.

광주일보는 “20년 장기 표류 광주문학관 건립, 물고 트이나라는 제목의 지난 8월 1일자 1면 특 기사를 통해 ‘과거 잡음을 일으키거나 도덕적 문제가 된 인사는 추진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문단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시 담당자들은 읽어나 보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광주광역시가 문학관 건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견인해 내는 것이 ‘광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의 목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즉시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시의 행정에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광주문학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

社 說

전두환 정권 안기부 통해 5·18 왜곡했다니

5·18항쟁이 일어난 지 40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신군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역사 왜곡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1988년 5·18광주민중화운동 진상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보안사를 중심으로 청문회 대책기구인 ‘511분석반’이 운영됐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이번엔 그 이전에 1985년에 범정부 기구인 ‘80위원회’가 가동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고 조직하는 등 조직적인 왜곡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5·18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에 ‘511분석반’(또는 511위원회)을, 그보다 3년 앞선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에 안전기획부 주관으로 청와대와 군은 물론 내무부·법무

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인 ‘80위원회’가 구성돼 당시 국회 질의 및 5·18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처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조위는 또 ‘80위원회’의 활동으로 군 기록 상당수가 삭제·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21일 도청 앞 집단 발표의 경우 오후 1시30분 자위권 보유 진영이 하달됐으며, 무릎뚱 자세로 집단 사격을 했다”는 충격적인 체행 수기를 발굴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조위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을 끄집어내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당시 및 현재 군 관계자들의 반발, 특조위의 진상 규명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증언자들이 있다고 한다.

벌써 37년이 지났다. 불의에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이다. 5·18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 우리 농협 맞나

농협이 운영하는 일선 하나로마트에서 여전히 수입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전념해야 할 농협이 ‘농심(농心)’을 외면한 채 바나나와 포도 등 수입 농산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개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라 전체 농협 판매장에서 수입 농산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적발된 전국의 하나로마트는 총 82개소였다. 그중에는 광주 6개소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수입 농산물 판매를 두고 단속 및 처벌에 나서야 할 농협중앙회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매장의 경우 농민단체의 항의나 단속에 판매를 중단했다가 추후 판매를 재개하는 등 수입 농산물 판

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협공판장의 외국산 판매에 커질수록 농민들의 소득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협이 애초 설립 취지나 목적과 달리 수익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협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제 살 깎아 먹거나 마 찬가지다. 수입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업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판에 농협 매장이 우리 농산물을 시장에서 밀어내서야 말이 되는가.

농협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금을 농민단체에 돌려준다는니, 다분히 가정을 배려한다는니 하는 것은 모두 구구한 변명일 뿐이다. 설사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잃은 처사다. 따라서 이제 수입 농산물 판매 시 매장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無 等 鼓

어릴 적 시골에서 키웠던 ‘백구’는 식구나 다름없었다. 시골에서 흔히 툭개로 불리는 잡종견인 백구는 따로 이름도 없이 털색으로 이름을 대신했다. 털통은 형편없었지만 깊은 밤 닭장에 침입하는 정제 모를 집음을 쫓아내는 등 든든한 집안의 존재였다. 식구들의 신발이 놓인 토방이 백구의 잠자리였다.

여덟 살 된 어린 주인이 도시로 떠나게 됐을 때 백구는 한 시간 거리의 버스 정거장까지 출출 따라왔다. 버스가 출발한 뒤에도 한참을 쫓아왔다. 이후 어린 주인이 추측 명칭을 찾아 고향을 찾았을

때 주인을 알아본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경중’ 앞발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백구의 키는 어린 주인보다 더 컸다. 요즘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다. 애견 인구만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릴 적 시골에서 백구를 키우던 때를 생각하면 께세지감을 느낀다.

펫티켓

그러나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 자연 낯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있다. 실제 겪었던 황당한 경우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보를 나온 개 주인이 어느 주인의 주택 입구에 싸놓은 개 분

이나 물릴까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111명이었다. 지난 21일에는 아이돌 가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프렌치불독)에 물린 50대 여성이 입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펫티켓’을 지키자는 말이 많이 나온다. ‘애완동물’(pet)과 ‘에티켓’을 합친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예절’을 의미한다.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의 ‘펫티켓’도 중요하지 않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송기통 애항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